

第19次 圖書館·情報學 學術세미나 第2主題

단행본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상재·최말희·장화옥
손 정·김미란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 2. 업무 개선 개괄 |
| II. 단행본 수집업무의 개선 | 3. 업무개선의 구체적 사례 |
| 1. 수서정책의 방향전환 | III. 덧붙이는 말 |
| |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을 머리에 띠 올리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 교사, 의사,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래머, 건축사 등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쉽게 띠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인들은 그냥 직업인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그것은 전문직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공통적인 특성이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나 사회전반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다.

둘째, 그들이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사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지적인 분야이다.

셋째, 담당하는 역할이 감각적이거나, 무질서하지 않고 어떤 한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다는 것이다. 즉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도입하여 그 바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인들은 직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대개 이 네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직업군들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서직은 어떠한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서는 전문직이라 주장하며 도서관이라는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지켜온 도서관 현장은 전문가들의 활동장소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앞에서 제시한 전문직의 4가지 공통적인 특성에 맞추어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분명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러나 사회전반적으로 사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는 외부의 시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서라는 이름조차 생소하거나 혹 알고 있더라도 도서관에서 책 지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도서관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도서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만다. 또 다른 하나는 사서직군 내부의 시각이다. 우리의 일상업무가 사서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지적인 분야라고 스스로가 과연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 현장은 누구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기에는 우리 현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 전문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서가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줄 현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전문화되지 못한 현장을 가지고 아무 노력없이 자격증이라는 종이한장을 들고 나는 전문가라고 주장한 것 밖에 없음을 뜻한다.

셋째, 이렇게 된 원인은 세번째 조건과 맞닿아 있다. 기술적인 원칙이 필요한 정리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현장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원칙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하는 자료선정기준과 구입의 원칙은 없고 1년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행정적인 원칙만이 있다. 이렇게 사서로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이 없는 현장, 이론이 없는 현장이기에 지금의 낙후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아무도 우리의 전문성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넷째, 한편 사서직이 직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적인 예로, 한국도서관협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서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외면하고 오히려 도서관이라는 조직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비전문직도서관장과 우리의 현장을 무시하고 한국에 앉아 미국의 도서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은 사회전반에 걸쳐, 또 사서직 내부적으로도 종이한장의 자격증외에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로 대두된다.

이 글은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3~4년간 실험적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새롭게 시도되었던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

단행본 수서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 소개되는 업무들이 다른 여러 도서관과 반드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부산대학교 도서관만의 사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서직이 함께 담보해 내야 할 '전문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II. 단행본 수집업무의 개선

수서업무는 도서관 봉사의 기초골격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크게 자료를 선택하는 일과 선택된 자료를 입수하는 일 즉, 선정과 구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료수집기능이 사서에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론(원칙이나 계획) 위에서 전문적인 수서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자료선정은 교수와 학생, 구입은 일반행정직에게 내 맡긴채 사서는 극히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 밑에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사서가 사서다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서업무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3~4년 동안 많은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1. 수서정책의 방향전환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서 정책은 과거의 양적인 수집을 탈피하고 질적인 장서구성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대학의 지표에 알맞은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지향점을 전환하였다. 즉, 부산대학교

의 지표인 대학의 국제화, 대학원 중심대학, 지역중핵대학의 역할에 맞추어 자료의 국제화, 연구자료 수집의 활성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료수집을 강조하게 되었다.

2. 업무개선 개괄

1) 주제담당 사서제 도입

교내 81개 학과를 인문, 예체능, 사회, 순수, 응용의 4가지 주제분야로 나누어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학과와 도서관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고, 언로를 열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인데,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약간의 기복을 거쳐 지금은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2) 수서실 업무 파트별 공동책임제 실시

업무분장이 개인별로 구분되어 업무간의 상호연계가 어려우며, 담당직원의 결원시 업무적 공백상태가 초래되므로, 1992년부터는 파트별 공동업무분장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케함과 동시에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외국자료 전량 직거래

보다 신속, 정확하고 값싸게 구입하기 위하여 외국자료는 전량 외국에 주문을 내어 구입하고 있다.

4) 일괄추천제도에서 분기별 추천제도로 변경(3,6,9,11월)

학기초(3월)에 일괄적으로 추천받아 구입하던 기존의 방식은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1년씩 묶어 두게 됨으로 효율적인 추천제도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외국자료일 경우 국내서점을 통한 구입은 기간이 너무 길어 구입방법의 개선이 따르지 않고서는 추천제도를 바꿀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구입방법 개선(직거래)과 함께 분기별 추천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 방법이 정착되면, 매월 추천 내지 수시 추천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다.

5) 자료개발위원회 구성

대학도서관에 있어 자료선택이 보다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보다 다양화됨으로 인해 도서관 자료선정을 위하여 정교한 기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까지 자료수집은 단순히 교수 및 학생들의 추천과 서지정보에 의한 사서들의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개발되어 옴으로 해서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상 충실치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수의 전문지식을 집약시켜 선정토록 자료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는 도서관장, 부관장, 수서과장, 수서실 실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장은 자료개발에 있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6) 기본장서개발(Core collection)계획

기본장서는 대학도서관에 반드시 수집되어야 할 기본적인 핵심

적인 장서를 의미한다. 기본장서 개발계획은 장서구성에 체계와 균형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7) 선택정보자료 제공

단행본구입의 대부분을 외국자료가 차지하고, 그 외국자료 선정의 대부분은 교수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가 다양한 선택정보제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의 누락을 최대한 보완하며, 장서구성상의 균형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8) 석·박사학위 논문 선별수서 실시

기존의 기증되어 오던 학위논문전량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용의 효율성, 정리문제와 공간부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기능이나 봉사적측면에 다소 역기능이 될 우려가 있지만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소장능력과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선별 수서하기로 하였다.

9) 정부간행물 수집업무

현대 정보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은 학술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이며,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에서는 각종 간행물 수집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다.

10) 장서등록 기준 매뉴얼 작성

대학도서관의 목적에 걸맞는 자료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료의 가치, 형태, 보존기간에 따라 자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계획(안)이 토론중에 있다.

그 외에도 선정도구 개발, 자료선정기준작성, 비도서자료 개발 등 많은 업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사항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는 몇가지 업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한다.

3. 업무개선의 구체적 사례

1) 주제담당사서제

대학도서관에 있어 도서선정 및 장서구성에 관한 책임과 권한, 또는 그에 관련된 문제를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집이 합리적이며 균형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서담당사서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뿐 아니라 학문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은 선진외국의 도서관들과 같이 각 학문분야에 대한 주제배경을 갖추고 그 분야의 전공서적을 완벽하게 선정할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가 배출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서가 좋은 자료를 선정하여 장서구성상의 균형을 이루고 공백을 메꾸어 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개발에 있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자료는 이들 자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을 교수추천에 의존하고 있어 사서가 도서선정 및 장서구성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현행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서 88년부터 주제담당사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장서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서들이 일종의 분업체제를 갖추음으로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학문분야를 인문,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자연순수계열, 자연응용계열의 4개 계열로 나누어 사서 1인이 한 분야씩 담당하여 계속적으로 선택(선정)자료를 입수하여 학과에 제공하는 일을 하며 부분적으로는 사서가 직접 자료선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이 체제는 현재까지와 같은 도서추천 및 선정방식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하여 국내외의 주요 서평지를 포함한 선정도구를 수집 활용하여 사서가 직접 도서를 선정하기도 하며 선택자료를 해당학과에 제공하기도 함으로써 양질의 도서 확보 및 균형과 최신성을 유지한 장서 구성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실시된 주제담당사서제는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 단행본 수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정보자료 제공업무와 추천받은 외국자료의 서지검색작업, 기본장서개발업무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주제담당사서는 각종 출판정보와 서지자료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개발 수집하고 수집된 서지정보자료를 담당분야별로 주제분류하여 학과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도서 선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당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보의 수집과정을 통하여 사서 스스로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한 다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과 및 교수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92년도부터 착수한 기본장서개발계획도 이 주제담당사서제를 활용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각 주제담당사서가 담당학과 교수들과의 면담과 그들의 협조를 통하여 기본장서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서가 도서선정 문제를 완벽하게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주제담당사서제를 통하여 선정문제를 자료의 요구자(교수, 학생)와 사서가 함께 풀어나가는 것, 다시 말해 사서가 선정자 및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주제전문사서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상과 같이 설명되는 주제담당사서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단행본 수서실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수서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들을 풀어 나가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2) 기본장서 개발계획

기본장서란,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상에 있어서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장서를 의미하며, 기본장서개발계획은 장서구성의 체계와 균형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 수서업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의 분배 원칙에 의한 학과교수의 추천, 즉 장서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 장서구성에 대한 시각이 없는 교수 개개인의 연구용 자료와 학생들의 학습용 자료에만 치중하여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교에서 이 계획을 처음 실시한 1989년에는 Books for College Libraries(1989), Choice(1989 issues), Gale Catalog(1989), Bowker Catalog(1989), 도서관과 자료의 활용법, 출판사 신간목록 등을 선정도구로 하여 서양자료의 기본참고자료 개발을 착수하였다. 선정방법은 우

선 주제담당사서가 일차적으로 선정한 후, 주제담당사서간의 합의에 의한 재선정과정을 거친 뒤에 전공분야 교수의 자문을 얻어 수집예정 기본참고자료목록 713종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목록의 자료를 유통조사 한 결과 437종(약 60%)만이 유통가능 하였고, 이것만을 구입가능한 자료라 생각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현품조사 후, 외국발주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구입이 된 자료는 108종(외국발주 종수의 약 25%)이었다. 유통가능한 자료만을 주문 내었지만 이렇게 구입이 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대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이익 추구만을 능사로 삼는 국내서점의 불성실 다시 말하여, 국내서점은 자기 창고에 있는 자료만을 판매하기를 원하고 또, 외국발주를 낼 때도 마진이 큰 다량의 주문이나, 출판사에만 주문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주문은 다량의 출판사에 해당되는 소량의 주문양(437종)이었으므로 성실히 주문을 수행하지 않았다.

둘째, 도서관의 시각에서 수서업무를 보지 않고 단지 일반 행정업무 측면에서만 보는 관계로 회계연도가 지나 버린 주문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지 않는 행정상의 확실적인 업무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구입되지 못한 자료를 90년도에 다시 재주문을 하지 않고, 이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기본장서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자료 구입에 있어서 직거래로 전환하게 된 강한 원인이 되었다.

이 계획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2년에 들어와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년간 제대로 수집되지 못한 기본장서를 갖추고 균형잡힌 장서구성을 이루기 위한 진행과정의 첫단계는 기본

장서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수서실 자체인력만으로 스스로 81개 학과에 해당되는 모든 주제의 목록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제담당사서와 학과 교수진과의 면담으로 도서관의 의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대개의 학과가 협조를 하고 있다. 1992년 여름 방학이나 2학기중 기본장서목록작성을 하기로 한 학과가 대다수이다. 이렇게 하여 목록이 완성되면 그 다음단계로는 도서관 자체에서 목록의 재선정과정을 거쳐 완벽한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된 목록의 자료라 할지라도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또 예산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금 토론 중에 있으며 현재 제시된 것으로는 기본장서목록의 많은 자료는 그 중요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인 만큼 많은 자료가 현재에도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유통되지 않는 자료는 질판자료만을 소장 판매하는 곳을 조사하여 구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OCLC On-Line 목록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하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3) 외국자료 구입업무

선택정보자료의 제공 등으로 외국자료 선정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입부분에 있어 국내서점을 통한 외국 발주의 결과는 업무상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구입률이 낮아 추천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에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외국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구입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서가 더 깊이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외국자료 구입방법의 변천과정은 아래표와 같다.

외국자료 구입방법의 변천과정

연 도	추 천 방 법	구 입 방 법
1987까지	추천카드에 출판사와 국내 주문처를 따로 기입	국내주문처별로 구입주문 : 국내서점에서 구입 못하면 미구입처리
1988	"	국내서점을 통하여 부분적 외국발주
1989~1990	추천카드에 출판사만 기입	국내현품조사후 나머지는 국내서점을 통하여 외국 발주
1991	"	국내현품조사 후 나머지는 직거래
1992	"	전량직거래

위의 표를 살펴보면, 1987년도까지는 국내에 있는 현품만을 구입함으로써 자료수집의 한계성을 나타내었으며, 추천자들의 불만을 샀다. 1988년 이후, 1989~90년도에는 국내서점을 통한 현품구입과 외국발주를 시도했지만 구입시기가 너무 늦고 구입률도 매우 낮아 구입업무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90년도까지 국내업자를 통한 외국도서 구입방법은 도서관 수서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여러가지 병폐를 드러 내었다.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천시기를 즈음하여 국내서점목록이 다량으로 교수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선택자가 다양한 정보 즉, 선택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국내서점보유자료에 한

정하여 안일하게 추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추천자료의 적절성과 최신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둘째, 납품업자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주문자료의 구입률이 지극히 저조하였고 자료가 신속하게 입수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구입자료에 대한 사유가 분명치 않아 추천자에게 도서관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원가격의 약 20%까지(30%까지 줄 수 있음) 추가지출함으로써 예산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서관의 상황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넷째, 송장원본(Original Invoice) 미제출 등으로, 정확한 가격근거가 불충분하여 국내업자들에 대한 도서관측의 불신감이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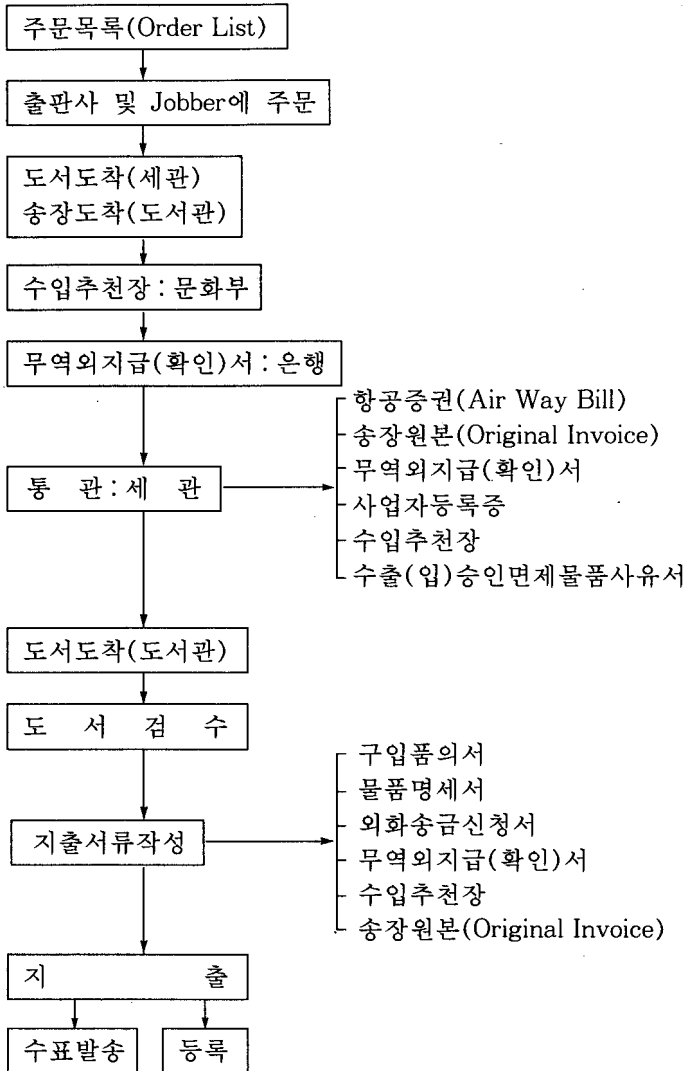
국내서점을 통한 구입업무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내서점에서 현품구입	국내서점을 통한 외국 발주
국내서점목록의 다량 배포로 자료의 적절성과 최신성의 문제	업무협조가 안됨: 송장(Invoice)미제출, 주문장 미제출 등
고객으로부터 도서관과 서점과의 관계의심: 추천시기에 서점의 도서전시	구입률이 낮다.
원가격의 20% 추가 지출	원가격의 20% 추가 지출
가격조사 근거가 불충분함	가격조사 근거가 불충분함
외국발주시기가 늦어짐	구입기간이 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1~92년에는 외국자료직거래를 실시하게 되었다.

다음은 외국과 직거래로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을 도표화 해 본 것이다. 발송방법이 \$1,000이상의 화물인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

만 소포일 경우는 통관과정이 생략되고 가격이 \$1,000미만일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의뢰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구입방법에 있어서 직거래로의 전환은 좋은 자료의 선정못지 않게 선택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제고와, 자료구입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직거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도서 추천을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주문과 구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89년도부터 실시하여 오던 선택정보자료제공업무를 개선하여 92년도에는 구미지역 227개처 일본 78개처 등 인지도가 높은 출판사에 최신 출판목록을 의뢰하여 추천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장서 구성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그 동안 실시된 직거래 결과 예산절감, 구입기간의 단축, 구입률의 향상 그리고 다양한 출판정보와 자료의 유통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정가의 약 20%까지 추가 지불하던 것을 인보이스가격에서 약 5~10%할인을 받음으로써 약 25~30%의 자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타 통신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도서관로서는 상당부분의 도서비가 절감되었다. 그리고 구입률의 향상과 구입기간의 단축은 직거래로 인한 성과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서, 국내업자를 통할 경우 구입기간이 주문일로부터 약 10개월이상 걸리고, 구입률이 평균 50%를 밑돌던 것이 92년도 전량 직거래를 실시한 이후 주문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평균 80%를 넘는 구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개월내에는 구입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구입기간에 있어서도 종래에 비하여 6~7개월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92년도 8월 5일 현재 지난 4월 18일 Academic Book Center로 주문한 결과를 살펴보자.

	종 수	백분율
총 주문 종수	828	100%
구입완료 종수 (미구입 사유 통보 받은 종수포함)	722	87.2%
현재까지 미구입 종수(구입중포함)	106	12.8%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외에 통신상의 언어장애, 행정업무의 폭주, 우편사고의 우려, 통신비용의 증가 등 직거래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업무의 전산화와 직원의 재교육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년간의 구입방법의 변천과정 속에서 외국출판사·Jobber·국내서점을 통한 외국 발주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국 출 판 사	Jobber	국 내 서 점
가 격	5~20%할인	5~10%할인	20%추가 지불
지불형태	선 불	후불가능	후 불
장 점	예산절감 구입의 신속성 미구입사유정확	예산절감 구입의 신속성 미구입사유정확 거래대상이 많지 않음 종합출판정보서비스	업무간편 후불
단 점	선불요구 의사소통부자유 통신요금증가 행정업무증가 : 문화부, 은행, 세관통 관 등 업무폭주: 국내서점이 나 Jobber를 통할 경우 보다 대폭증가	화물일경우통관업무 의사소통부자유 통신요금증가 행정업무증가 거래처와의 업무 증가 : 국내서점을 통할 경 우보다는 증가	예산낭비 구입이 신속하지 못함 신뢰성이 없음 : 인보이스 미제출, 미구입사유불분명 출판정보가 없다

4) 선택정보자료 제공업무

선택정보자료 제공업무란 외국도서의 선정이 대부분 교수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양질의 도서 및 최신도서를 추천받기 위하여 도서관이 교수들에게 선택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부산대학교에서의 도서추천은 추천시기마다 각교수 연구실로 투입되는 다량의 서점목록(출판년도 누락)이나 전문도서, 학술잡지속의 인용문헌에서 발췌 선정하여 추천되는 경향이 있었기에 장서구성상 불균형 및 최신성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와 같은 종래의 도서추천방식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하고자 세계의 주요서평지, 서지도구 등을 이용한 선택자료를 교수들에게 제공하여 사서가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의 누락을 최대한 보완하며, 장서구성상의 균형과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주제담당사서가 외국출판사의 출판목록과 Books in Print, Choice, Books For College Librarians, 일본출판년감 등 서지도구에서 해당부분을 뽑아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서직이 도서관내에 주제전문사서가 없는 상황에서 장서개발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자료의 많은 부분이 외국출판사의 최신 Catalog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으로, 선정범위가 입수가 가능한 출판목록의 범위로만 제한될 우려가 있어 92년도에는 외국의 305개 출판사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 지역을 집중적으로 추가하여 출판목록 요청을 다양화하였고, 분기별 도서추천제 도입에 따른 년 4회 선택정보 자료제공으로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되어지는 선택정보자료

가 대개 국내에는 수입되어 있지 않은 최신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한 신속한 구입을 했을 때 자료의 효용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본다. 이 제도가 지난 4년간 실시되어 옴에 따라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선택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도서추천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양질의 선택정보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Ⅲ. 덧붙이는 말

이제까지 부산대학교 도서관 단행본 수서실에서 중점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몇가지를 소개하였다. 그 누구의 글도 참고로 하지 않고 다만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시행한 자체 세미나 자료 「수서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와 「도서관 소식」 창간호, 2호 등을 참고하여 설명하였다. 너무 실무적인 사항만을 강조하다 보니 논리정연하게 잘 기술되지는 못하였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만 전문가가 아니었던가? 실제 내부, 자기 자신의 속까지 전문가였던가? 도서관에서 우리는 프로로서 일을 해야 한다. 프로로서의 우리는 도서관 현장을 전문가가 꾸며놓은 세련된 장소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우리의 도서관이 진정한 도서관의 모습을 찾을 때 우리는 종이 한장의 전문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전문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여기 소개한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서실의 변화된 모습들이 완벽하다거나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도 아니다. 또 최선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서로서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수서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미간본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전기획 세미나 시리즈」, 발표원고(1992. 3)
2. 「도서관 소식」, 부산대학교 도서관, 창간호, (1989. 4)
3. 「도서관 소식」, 부산대학교 도서관, 2호, (1990. 3)
4. 「도서관 소식」, 부산대학교 도서관, 3호, (1992. 8)
5. “부산대학교 도서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미간본 「제1차 전국 사서협회 부산, 경남지역분회, 대학도서관분과 세미나」, 발표원고 (1992. 8. 1).